

코로나19, 보건의료의 현재와 이후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 1월 20일,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된 이후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새로운 사회규범과 ‘언택트(untact)’라 지칭되는 비대면 문화가 생겨났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 속에서 최근 사회 각 분야는 방역과 일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코로나 공존(with corona)’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제15권 1호에는 의료계·학계·정부기관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먼저,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감염내과 전문의 시각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오면서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기적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일련의 상황들이 남아있다. 이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接种의 세계적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담았다.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언택트 사회의 도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특히 디지털 보건의료기술 적용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스마트 보건의료 현황과 외국의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 현황, 그리고 향후 지향점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평범했던 일상이 더욱 간절해지는 시기이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공존하며 포스트 코로나로 이행하는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 다룬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이 코로나19 공존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X